

# 도색잡지의 개성과 차별화 전략

도색잡지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플레이보이」지의 창간사에서 발행인 헤프너는 “만일 여러분이 오락과 세련미, 그리고 짜릿한 맛을 원하신다면 플레이보이는 바로 여러분의 독특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라며 본격적인 남성오락지로서 다른 잡지와 차별성을 강조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플레이보이」 이후의 대표적 도색잡지로 널리 알려진 「펜트하우스」와 「허슬러」의 경우도 같은 남성용 오락지면서 각각 앞선 잡지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것들에 비견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성공들을 거두었다. 색스라는 동일한 주제를 각기 다르게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독자층을 창출했다는 것인데, 다음에 이 세 잡지의 특성과 차별화 전략의 실상을 살펴본다. 출전은 한국언론연구원이 펴낸 「세계의 잡지」(1988).

## 플레이보이

20세기 후반의 잡지저널리즘에 있어서 「플레이보이」처럼 화제가 된 잡지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발행인인 휴 헤프너의 혁명적 잡지제작에 새로운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플레이보이」는 잡지 뿐 아니라 성의 혁명과 함께 색스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플레이보이」는 1953년 창간됐다. 시카고에 있는 「에스콰이어」사의 판촉부사원으로 근무했던 28세의 휴 헤프너는 가정불화로 집에서 쫓겨난 채 싸구려 아파트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그는 늘 독신 남성용으로 「에스콰이어」와 같은 문예풍에 색스를 가미한 잡지를 창간하려고 기도했다. 그것도 옥외보다는 방안에서 뒹굴며 보는 잡지, 사냥 낚시 등산보다도 식사나 패션, 그리고 여성들의 즐거움에 관심을 갖는 도시형 잡지를 구상한 것이다.

창간호의 센터폴더 누드 사진으로는 마릴린 먼로의 것을 실었다. 이 사진은 헤프너가 3년전 어느 회사의 캘린더에 사용된 것을 재료 500달러를 주고 과감하게 실었다. 폴더에 실린 젊고 발랄한 누드 여인은 헤프너의 ‘발명품’이었으며 그녀들은 시대와 함께 얼굴도 육체도 스타일도 변해갔다.

「플레이보이」의 인터뷰란은 또하나의 읽을거리였는데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인터뷰어로 근무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선거 때 이 인터뷰에 걸린 지미 카터가 ‘마음 속의 간음’을 고백한 것은 유명한 화제가 되어 히트 인터뷰로 꼽힌다.

## 펜트하우스

「플레이보이」가 폭발적 성공을 거두자 이를 흉내낸 잡지가 무수히 쏟아졌다. 그중 1인 3억의 천재적인 미술학도 보브 구초네에 의해 영국에서 처음 창간된 「펜트하우스」는 후발잡지였지만 「플레이보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다. 1969년 「펜트하우스」가 뉴욕에서 미국판 창간호를 냈을 때 뉴욕타임스 전면광고란에 사툼 도전적인 광고를 실었다. “나는 드디어 토끼 사냥에 나선다”(토끼란 플레이보이의 트레이드마크다). 그리고 72년 6월에는 “아버지의 날에는 아빠에게 「플레이보이」를 선물하자”고 광고했다. 「플레이보이」는 이제 노년층이나 읽는 잡지이고 「펜트하우스」는 젊은층이 읽는 잡지라는 비유였다.

「플레이보이」가 남성잡지의 왕자답게 당당한 품격에 편집내용이 정연한 것에 비해 「펜트하우스」는 프로페셔널한 것보다 친진난만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며 조직사회에 역행하는 개인기의 산물이라고 지적된다. 모델여성도 페트(pet)처럼 몸집이 작고 색스한 여자들

많이 다루어 도발적이고 선정적인 성향을 풍기며 음모도 「플레이보이」보다 한결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플레이보이」의 간판기획물이 인터뷰라면 「펜트하우스」는 인베스티게이팅 리포트로 독자의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월남전 당시의 조사료는 획기적인 읽을거리가 많았다.

## 허슬러

렐리 프린트가 1974년에 창간한 「허슬러」는 「플레이보이」나 「펜트하우스」보다 한술더 뜨는 표현으로 남성잡지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충격이란 「펜트하우스」가 음모를 드러낸 이상으로 여성의 성기 그대로를 속속들이 사진으로 보인 것이다. 이렇게 감추어진 커튼을 활짝 젖힌듯한 걸리 매거진(Girlie Magazine)은 일찍이 없었다. 이에 대해 프린트는 도회화 잡지에 무시당한 중서부 사람들을 위한 색스잡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 했다. 중서부의 무료한 평원을 며칠이고 달려야 하는 컨테이너 운전자, 바나 식당 주인, 농부 등에 성적인 상상력과 바깥 세계의 이곳저곳을 안내함으로써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것이 허슬러의 제작기초.

이같은 목적으로 창간된 허슬러는 저질스럽지만 오히려 솔직하고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데 특징이 있다. 지나친 내용 때문에 정식 유통기구를 통해서 판매할 수 없는 경우도 자주 있었고 외설죄로 고소도 많이 당했다. 그러나 부수는 갈수록 늘어 1976년에는 196만부에 이르렀다. 광고도 대기업 광고는 게재되지 않았으며 설사 요청이 있더라도 필요치 않았다. 부수가 급격히 신장한 것은 워니 워니 해도 거리낌없는 나체사진 때문이라는 것이 오랜 조사결과 나타났다.

# 출판저널

○ 통권 제149호 / 1994년 5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부장—강철주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최병천  
 김유희 김동필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출판저널」은 서평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매호 '독자서평'을 고정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간 가운데 감명깊었거나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골라 서평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 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이며 책명과 저·역자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되며 교료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송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일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나는 정신세계사의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 □ 성자가 된 청소년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감동의 영적 소설집/바바 하루 다스 지음/류시화 옮김/5,000원

### □ 뼈빠라기

처음으로 문명을 본 남양의 추장 투이아비가 들려주는 문명의 우수장스런 본질/최시림 옮김/4,000원

### □ 털없는 원숭이

인간적 행위의 동물적 의미를 들추는 냉정한 인간 성찰/테스먼드 모리스 지음/김석희 옮김/5,000원

### □ 파라독스 이슬 우화

인간과 삶에 대한 신선한 역설이 담긴 '전혀 다른' 이슬 우화/로버트 집러 지음/김정우 옮김/3,800원

### □ 파라독스 중국 우화

루쉰, 귀모워 등 중국의 현대 작가 22인의 우화 선집/루쉰의 지음/이효림 엮고 옮김/3,500원

### □ 자유를 위한 변명

구도의 출판 홍신자의 자유롭고 파격적인 삶의 이야기/홍신자 지음/5,000원

### □ 푸나의 추억

라즈니쉬의 첫 한국인 제작자였던 홍신자의 인도에서의 구도 체험/홍신자 지음/5,000원

### □ 식물의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한 책/피터 토크스 외 지음/황정민 옮김/7,500원

### □ 초인생활

히말라야 초인들의 초자연적 세계를 목격한 한 미국인의 기록/베어트 T. 스펠링/정창영 옮김/7,000원

### □ 나는 왜 아버지를 잡아먹었나

소설로 풍자한 인류 진화사. 200만 년을 단숨에, 웃으며 읽는다/로이 루이스 지음/김석희 옮김/4,800원

### □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인디언 추장. 용사. 아나베들의 말을 통해서 읽는 삶의 의미/시애틀 추장 외/류시화 옮김/4,500원

### □ 사람을 살리는 단식

단식으로 암을 치료한다—이론·방법·임상을 망라한 단식 실천 지침서/장두석 편저/6,500원

### □ 건강도인술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중국 3천 년의 건강 비법/하야시마 마사오 지음/김중오 옮김/6,500원

### □ 건강기공

동양적 건강법의 총체인 기공의 원리와 상세한 수련 방법/이동현 지음/6,500원

### □ 이집트의 신비

거대 유적의 비밀과 정신적 유산의 신비를 캐는 영적인 이집트 탐험/폴 브러튼 지음/이규형 옮김/6,500원

### □ 단

민족의 역사와 미래. 정신수련법을 다룬 민족 소설/권태훈 지음/김정민 지음/4,500원

### □ 한단고기

사대주의와 식민사학에 밀려 천여 년을 떠돌던 문명의 역사서/임승국 역주/7,000원

### □ 옛詩情을 더듬어

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 빼어난 우리 한시 300여 수를 평설/손종섭 편저/12,000원

### □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속 文化

우주의 원리가 숨쉬는 秘典(天符經)의 심오한 세계와 우리 고유 문화/권태훈 지음/12,000원

### □ 民族秘傳 정신수련법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수련법을 정리. 해설한 책/봉우 권태훈 감수/정재승 편저/6,500원